

『韓国語教育研究』(第10号)別刷

ISSN 2186-2044

【研究ノート】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

임 문택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0年9月

#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

임 문택

한국어를 지도할 때 발음 교육의 중요성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발음교육의 교육개발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발음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필자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해결해 보려 한다. 본고의 투고 목적은 한국어와 일본어(이하 양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상에서 유사성이 나타나는 이유와 양 언어의 표기법상의 특징을 학습자에게 비교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교육 시간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표기 체계에도 경음과 받침(종성자)의 표기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일본어에서 나타나는 표기법상의 특징을 재고찰해 봄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발음교수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연구자료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직 학문적으로 연구가 깊이 이루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지만, 본고를 통해 앞으로 한국어교육의 유용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 1. 들어가기

먼저 한글과 일본어(仮名)를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일본어의 가나(仮名)는 가타가나(片仮名)와 히라가나(平仮名)가 있는데, 그 어느 쪽도 형성 원리가 한자에서 유래한다.<sup>1</sup> 그러나,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은 제자 원리가 모음은 천, 지, 인에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 1940년 해례본의 발견으로 입증되었다. 한글은 각각의 자모가 각자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소문자인 반면, 일본어의 가나(仮名)는 각각의 글자가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절문자라는 것이 문자학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글과 가나(仮名)는 표기법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발음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sup>1</sup> 강인선(2015) 가나의 역사와 현황. p46 인용.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을 새로운 발음 체계로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은 학습 시간의 경제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언어에서 실현되는 언어 형성의 공통적 원리와 체계성을 인지하고 학습에 들어간다면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에서 동반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법이 될 것이다.

## 2.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대조언어학적 연구방법과 일반음운론을 바탕으로 한 범언어학적 연구방법이다. 특히 일본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로는 우인혜(1998)과 이경희·정명숙(2000)과 김정숙(1992) 등이 대표적이며, 일반음운론을 바탕으로 한 범언어학적 연구로는 허용(2004), 김선정(2004)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와 달리 김지형(2007)과 JI MENG(2011)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활용하여 발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김지형(2007)에서는 자모(子母) 제작의 기본 원칙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근거하여 5행(五行) 5음(五音)으로 분류하여 효과적인 자모(子母) 교육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김선정(2004)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자음체계에 따른 지도 방안과 음운현상에 따른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음의 지도방안으로는 자음 체계의 교육 순서와 기본자가 상형한 조음 기관도를 제시하여 한글의 제자 원리와 발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음운현상에 따른 지도 방안으로는 종성 자음과 모음의 연쇄(연음화), 종성 자음과 자음의 연쇄(종성 자음 중화, 자음군 단순화, 경음화, 격음화), 종성 자음과 공명자음의 연쇄(비음화, 유음화)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학습 시간을 고려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받침(종성자)의 발음교육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를 통해 양 언어 간 발음상의 유사점과 표기법상의 특징을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한글 자모(子母)교육과 받침(종성자)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활용한 발음 교육

본장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필자의 발음 교수법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 3.1 발음 교육 1교시

발음 교육 1교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음소문자와 음절문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한국어의 기본모음과 기본자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기본자음 14자와, 기본모음 10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한국어의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 3.1.1 기본모음과 기본자음의 제자 원리

표 1

<p>中聲凡十一字. ·舌縮而聲深, 天開於子地. 形之圓, 象乎天也.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關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 此下八聲, 一闔一關. ㄱ與·同而口蹙, 其形則·與一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ㅏ與·同而口張, 其形則 與·合而成, 取天地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ㅑ與一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ㅋ與一合而口張, 其形則·與 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ㅓ與ㅏ而起於 . ㅕ與ㅑ同而起於 . ㅗ與ㅑ同而起於 . ㅋ與ㅑ同而起於 .</p> <p>가운뎃소리는 무릇 열한자이다. ·는 혀가 움츠러드니 소리가 깊다. 하늘은 자시(子時)에 열리는바,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一는 혀가 조금 움츠러드니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다. 땅은 축시(丑時)에 열리는바,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는 혀가 움츠러들지 않으니 소리가 얕다. 사람은 인시(寅時)에 생기는바, 그 모양이 서 있음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sup>2</sup> 이 아래의 여덟 소리는 하나는 닫힘이며 하나는 열림이다. ㅏ는 ·와 같되, 입이 오므라지는바, 그 모양이 ·가 一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것을 취하였다. ㅑ는 ·와 같되, 입이 벌어지는바, 그 모양이  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사물을 쓰고 펼침이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짐을 취하였다. ㅑ는 一와 같되, 입이 오므라지는바, 그 모양이 一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취하였다. ㅋ는 一와 같되, 입이 벌어지는바, 그 모양이 ·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서 피어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짐을 취하였다.<sup>3</sup> ㅓ는 ㅏ와 같되, (소리가)  에서 일어나고, ㅕ는 ㅑ와 같되, (소리가)  에서 일어나고, ㅗ는 ㅑ와 같되, (소리가)  에서 일어나고, ㅋ는 ㅑ와 같되, (소리가)  에서 일어난다.<sup>4</sup></p>
---

필자는 위의 표1의 제자 원리를 아래의 해석으로 발음 교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단모음 “ㅏ”와 이중모음 “ㅑ”는 그 형성 원리가 같기에 기본발음법<sup>5</sup>이 동일하다는

<sup>2</sup>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보여주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구별.

<sup>3</sup>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보여주는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고·중·저모음의 구별.

<sup>4</sup>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보여주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구별.

<sup>5</sup>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발음법이란 발음기관의 동작이 혀 이 외의 기관에서는 일어나지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ㅏ는 ㅑ와 같되 (소리가) ㅑ에서 일어난다.”<sup>6</sup>는 부분을 현 음성학적 해석으로 하면 “ㅏ”의 발음은 “ㅑ”의 발음과 기본발음법이 동일하지만, 첫 조음점이 “ㅑ”에서 시작한다는 것 외에 다른 발음기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혀의 위치 변화만으로 발음을 구별할 수 있다.

위 설명의 원리를 적용하면 단모음 “ㅑ”와 이중모음 “ㅑㅑ”도 기본발음법이 같고, 단모음 “ㅓ”와 이중모음 “ㅓㅓ”도 기본발음법이 같고, 단모음 “ㅕ”와 이중모음 “ㅕㅕ”도 기본발음법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본모음을 교육할 때 발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혀의 위치 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 “ㅡ”와 “ㅣ”는 같은 단모음이기에 위의 설명에 비추어 기본발음법이 동일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김지형(2007)의 해석<sup>7</sup>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단모음의 발음법도 혀의 위치 변화만으로 발음의 구별이 가능하기에 기본발음법이 동일한 단모음으로의 정의가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본모음의 제자 원리를 통한 발음 교수법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중설모음 “ㅑ”의 발음이 일본어 발음 체계에 없기에 “ㅑ” 발음의 학습 방법은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새로운 교수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각 언어권별로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8</sup>

## 표 2

<p>五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候之形.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ㅈ,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畫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ㅈ而ㅊ, ㅊ而ㅌ, ㅇ而ㅎ, ㅎ而ㅎ,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為異. 半舌音ㄹ, 半齒音ㄷ,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p> <p>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첫소리는 무릇 열 일곱자인데,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 ㅁ은 입의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 ㅈ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ㅋ은 ㄱ보다 소리가 조금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p>
---

않는 발음법을 의미한다.

<sup>6</sup> ㅏ與ㅑ同而起於ㅑ.

<sup>7</sup>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ㅑ舌不縮而聲淺.”은 이러한 혀의 움직임에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형(2007) p243.

<sup>8</sup> 필자는 모음사각도를 활용한 개구도(開口度)와 턱의 각도를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는 교수법으로 지도하고 있다.

서 ㅍ, ㅓ에서 ㅈ, ㅗ에서 ㅊ, ㅜ에서 ㅎ이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이 모두 같으나, 오직 ㅅ만은 다르게 하였다. 반헛소리 ㄹ, 반잇소리 ㅏ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모양을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표 2는 기본자음의 제자 원리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17자의 기본자음이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14자만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14자의 기본자음의 교수법만 언급하기로 한다.

김지형(2007)에 의하면 자모 교육의 순서를 자음을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의 순서로 교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표준국어교육에서의 학습 순서가 정해져 있기에 한국어교육에서도 통일된 교수법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그 통일성이 흐트러지면 각 교재마다 학습 순서와 교수법이 다르게 제시되어 학습자들의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학습목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는 음소문자이라는 개념을 학습자가 인지하면 자모의 순서에 의한 학습 효과의 차이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또 본 단원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발음상의 차이와 음운현상에 따른 음운 변동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은 학습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에, 어떤 어휘의를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시간적 환경적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보다는 청각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표 3

ㅏ	a	ㅑ	ya	ㅓ	eo	ㅕ	yeo	ㅗ	o	ㅛ	yo	ㅜ	u	ㅠ	yu	ㅡ	eu	ㅣ	i
---	---	---	----	---	----	---	-----	---	---	---	----	---	---	---	----	---	----	---	---

표 4

ㄱ	[giyeok]	ㄴ	[nieun]	ㄷ	[digeut]	ㄹ	[rieul]	ㅁ	[mieum]
ㅂ	[bieup]	ㅅ	[siot]	ㅇ	[ieung]	ㅈ	[jieut]	ㅊ	[chieut]
ㅋ	[kieuk]	ㅌ	[tieut]	ㅍ	[pieup]	ㅎ	[hieut]		

표 3과 4는 현대 학국어의 기본모음과 기본자음을 표시한 것인데, 필자는 한국어는 영어와 같이 문자학적으로 음소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모(子母)의 순서를 교수법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음소의 개념을 학습자에게 얼마나 알기 쉽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 3.1.2 발음 교육 1교시의 학습 어휘

발음 교육 1 교시의 학습 어휘는 다음과 같다.<sup>9</sup>

- ㄱ 가구, 거기, 고교, 고기
- ㄴ 나이, 너, 누구, 누나
- ㄷ 가다, 고도, 구두, 도구
- ㄹ 나라, 너구리, 다리, 라디오
- ㅁ 나무, 고구마, 머리, 모자
- ㅂ 나비, 두부, 바다, 부부
- ㅅ 가수, 도시, 소나무, 소리
- ㅇ 아기, 야구, 여우, 오다
- ㅈ 자기, 자유, 조미료, 지구
- ㅊ 고추, 차이, 초대, 치마
- ㅋ 커피, 코, 크다, 키
- ㅌ 타다, 타자, 투수, 투자
- ㅍ 파도, 파리, 포도, 피자
- ㅎ 하나, 하다, 허리, 호수

### 3.2 발음 교육 2교시

발음 교육 2 교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모(子母)와 합성모음의 결합으로 형성된 한국어의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 ② 표준 발음과 실제 발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3.2.1 합성모음의 제자 원리

발음 교육 2 교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sup>9</sup>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발취하였으며, 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휘는 숙달도에 따른 사용 어휘가 아닌, 읽고 쓸 수 있는 이해 어휘에 학습목표를 두었다.

二字合用者, ㄱ與ㄴ同出於·, 故合而爲과. ㄱ與ㅋ又同出於 ], 合而爲과. ㄷ與ㅌ同出於一, 故合而爲거. ㅌ與ㅊ又同出於 ], 故合而爲겨. 以其同出而爲類, 故相合而不悖也.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ㅈ, ㄱ-ㄴ니거기케피ㅈ기케是也. 二字中聲之與 ] 相合者ㅊ, 과게패게是也. ] 於深淺開關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

두 글자를 합하여 씬에 있어서는 ㄱ과 ㄴ는 같이 ·에서 나왔고 합하여 과가 되고, ㄱ과 ㅋ도 모두 같이 ]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과가 되고, ㄷ과 ㅌ는 같이 —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거가 되고, ㅌ와 ㅊ도 ]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겨가 되는 것이니, 같은 데서 나와서 한 무리가 됨으로 서로 합하여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 글자로 된 가운데소리로 ]와 서로 합한 것은 열이니, ㄱ-ㄴ니거기케피ㅈ기케가 그것이다. 두 글자로 된 가운데소리로 ]와 서로 합한 것은 넷이니, 과게패게가 그것이다. ]가 깊고 얇은 소리와,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아울러서 능히 서로 따르는 것은, ( ] 소리를 낼 때) 혀가 퍼지고 소리가 얇아서 입을 여는데 편하기 때문이니, 또한 사람이 만물을 여는 데 참여하고 도와서 통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볼 수 있다.<sup>10</sup>

본장에서는 합성모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또 현대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발음과 실제발음의 구별을 학습자들이 인지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에서 발음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필자는 입문과정에서 표준발음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는 것 보다, 실제 발음을 인지시키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필자는 단모음 ㅈ[ɛ]와 ㅊ[e]를 동일 발음으로, 이중모음 ㅈ[je], ㅊ[je]를 동일 발음으로, 이중모음 ㅈ[we]와 단모음 ㅈ[ø], 이중모음 ㅈ[we]를 모두 ㅈ[we]로 통일하여 교수하고 있다.

김정숙(1992:101) 에서도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에 이들 각각의 발음이 존재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이들의 정확한 발음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발음을 구태여 구분해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가 있는데 필자의 주장도 이에 상응한다.

그 외의 합성모음 “과 거 기 니”는 글자의 제자 원리를 학습자가 이해함으로써 학습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부분은 아니다. 단, “니”발음이 일본어 발음 체계에 없기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본고 3. 1. 1 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한국어 기본모음의 제자 원리를 학습자가 바르게 이해하면 별도의 학습방법이 필요없는 부분이다.<sup>11</sup>

<sup>10</sup> 음양의 제자 원리와 사람을 가르키는 ] (중성모음)의 결합 원리.

<sup>11</sup> 단모음 “니”와 “ ] ”는 기본 발음법이 같다.

### 3.2.2 발음 교육 2교시 학습 어휘

발음 교육 2 교시의 학습 어휘는 다음과 같다.

- ㄱ 개구리, 매우, 새, 배추
- ㄴ 얘기
- ㄷ 게, 데이트, 메일, 제주도
- ㅋ 예, 예리하다, 예매, 예보
- ㄴㅏ 과자, 와이셔츠, 좌우, 화가
- ㄴㅐ 돼지, 왜
- ㄴㅑ 외교, 외래어, 죄, 회사
- ㄱㅑ 뒤, 워드
- ㄱㅓ 웨이터, 스웨터
- ㄱㅕ 귀, 위, 위치, 취미
- ㄴㅑ 의미, 의사, 의자, 의지

### 3.3 발음 교육 3교시

발음 교육 3 교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모(子母)와 합성자음의 결합으로 형성된 한국어의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 ② 한국어의 합성자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일본어의 발음과 표기법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3.3.1 합성자음의 제자 원리

발음 교육 3 교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ㄱ. 並書。如虯字初發聲	ㄷ. 並書。如覃字初發聲
ㅅ. 並書。如步字初發聲	ㅈ. 並書。如慈字初發聲
ㅊ. 並書。如邪字初發聲	ㅎ. 並書。如洪字初發聲
ㄱ을 나란히 쓰면 꿀(虯)자의 첫소리와 같다.	
ㄷ을 나란히 쓰면 땀(覃)자의 첫소리와 같다.	
ㅅ을 나란히 쓰면 뽕(步)자의 첫소리와 같다.	

ㅈ을 나란히 쓰면 ㅉ(慈)자의 첫소리와 같다.  
 ㅊ을 나란히 쓰면 ㅃ(邪)자의 첫소리와 같다.  
 ㅎ을 나란히 쓰면 ㅎㅎ(洪)자의 첫소리와 같다.

본장에서는 한국어의 합성자음(경음)의 발음이 일본어의 발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양 언어 간의 발음상, 표기법상의 특징을 대조 설명해 봄으로써 학습 시간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필자는 일본어에도 경음이 존재하지만, 표기법상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양 언어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음의 표기법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다.

### 3.3.2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음 대조

표 7

한국어			일본어		
평음	격음	경음	평음	격음	경음 <sup>12</sup>
가	카	까	ガ	かさ 카사	けっか 켱까
다	타	따	ダ	たかい 타카이	やった 앓따
바	파	빠	バ	パリ 파리	やっぱり 앵빠리
사	*	싸	あさり	*	あっさり 아싸리 <sup>13</sup>
지	치	찌	ジ	ちかい 치카이	あっち 앓찌

위 표7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어의 경음 발음이 일본어 발음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는 음성학적으로 명확히 다른 발음이지만 표기법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서로 상이한 두 발음의 차이를 표기법상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음의 실현 과정에서 오는 현상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어두, 어중, 어말에서 일어나는 내파(内破) 현상을 한국어는 표기법으로 구별을 하지만, 일본어의 표기법은 어중에서만 사용되는 축음 “ッ”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내파(内破) 현상을 표기법으로 구별

<sup>12</sup> 축음 “ッ”의 영향으로 후속 자음이 필수적 경음화 현상을 일으킴.

<sup>13</sup> 마찰음의 특성상 공기의 흐름이 완전 폐쇄되지 않음.

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어도 일본어도 경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폐쇄시키지 않으면 발음 실현을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표 8

표기법	실제 발음	한국어의 경음 형성의 원리
토끼	톡끼	받침 [k]의 내파 현상으로 후속 자음이 경음화.
허리띠	허릿띠	받침 [t]의 내파 현상으로 후속 자음이 경음화.
아빠	압빠	받침 [p]의 내파 현상이 후속 자음이 경음화.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어도 경음 발음을 실현하기 위해 받침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하지만, 표기법상에서는 받침 표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양 언어는 발음의 실현을 위해 동일한 형성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표기법상에서만 서로 다른 표기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양 언어 간 발음의 형성 원리와 표기법상의 특징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교수법이야말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교실 학습의 경제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3.3 발음 교육 3교시의 학습 어휘

발음 교육 3 교시의 학습 어휘는 다음과 같다.

- ㄱ ㄱ 까마귀, 꼬마, 꽤, 끄다
- ㄷ ㄷ 따다, 또, 뛰다, 뜨다
- ㅃ ㅃ 빠르다, 빼다, 빼, 뿌리
- ㅆ ㅆ 싸다, 쓰다, 쓰레기, ~씨
- ㅈ ㅈ 짜다, 찌개, 찌꺼기, 찌다

### 3.4 어휘발음 교육 4교시

발음 교육 4 교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모(字母)와 받침의 결합으로 형성된 한국어의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② 한국어 받침 표기법과 실제 발음을 이해하고 일본어의 받침 발음의 표기법과 발음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3.4.1 받침의 제자 원리

표 9

<p>終聲者解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如卽<b>죽</b>字終聲是ㄱ, ㄱ居<b>즈</b>終而爲<b>죽</b>. 洪字終聲是ㅇ, ㅇ居<b>호</b>終而爲<b>호</b>之類, 舌脣齒喉皆同,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不清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全清次清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ㅇㄴㅇㄹㅇㄷㅇㄱ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ㄱㅇㄷㄴㅂㅁㅅ八字可足用也, 如<b>벚꽃</b>爲梨花, <b>여의갯</b>爲狐皮, 而入字可以通用, 故只用入字.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ㅁ聲可得成音也, ㄷ如<b>뉘</b>爲鸞, ㄴ如<b>군</b>爲君, ㅂ如<b>업</b>爲業, ㅁ如<b>땀</b>爲覃, ㅅ如<b>옷</b>爲衣, ㄹ如<b>실</b>爲絲之類          끝소리 글자 사용법          끝소리는 첫소리와 가운뎃소리를 이어서 음절을 이룬다. 즉자의 끝소리는 ㄱ이니, ㄱ이 <b>즈</b>의 끝에 놓여서 <b>죽</b>이 된다. <b>호</b>자의 끝소리는 ㅇ이니, ㅇ이 <b>호</b>의 끝에 놓여서 <b>호</b>이 되는 등과 같다.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도 모두 한가지다.          소리에는 느리고 빠름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성, 상성, 거성은 그 끝소리가 입성의 빠름에 들지 못한다. 불청불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못한 까닭에 끝소리로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해당하고,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센 까닭에 끝소리로 쓰면 입성에 알맞다. 그러므로 ㅇㄴㅇㄹㅇㄷㅇㄱ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끝소리가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끝소리가 된다. 그러나, ㄱㅇㄷㄴㅂㅁㅅ 여덟 자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 <b>벚꽃</b>[梨花], <b>여의갯</b>[狐皮]에서는 ㅅ자로 두루 쓸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만을 쓰는 것과 같다. 또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끝소리에 쓸 필요가 없어 가운뎃 소리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ㄷ은 <b>뉘</b>이 되고, ㄴ은 <b>군</b>이 되고, ㅂ은 <b>업</b>이 되고, ㅁ은 <b>땀</b>이 되고, ㅅ은 토박이말의 <b>·옷</b>[衣]이 되고, ㄹ은 토박이말의 <b>:실</b>[絲]이 됨과 같다.</p>
---

본장에서는 한국어의 받침 표기법과 실제 발음을 일본어의 표기법과 발음에 대조해 봄으로써 양 언어 간의 발음상의 유사성과 표기법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필자는 일본어에도 받침 발음과 받침 표기법이 존재하지만, 표기법상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양 언어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내고 있는 받침 표기법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 3.4.2 한국어의 받침과 일본어의 받침 발음 및 표기법의 대조

표 10

한국어 받침	대표음	홀소리 받침	겹소리 받침
받침 k	각	ㄱ ㅋ ㆁ	ㄱ ㄷ
받침 n	간	ㄴ	ㄴ ㄹ
받침 t	간	ㄷ ㅌ ㅍ ㅊ ㅌ ㅍ ㅊ	
받침 l	갈	ㄹ	ㄹ ㄷ ㄹ ㄹ
받침 m	감	ㅁ	ㅁ
받침 p	갑	ㅂ ㅍ	ㅂ ㅍ
받침 ng	강	ㅇ	

표 11

일본어 받침	표기 예	로마자 표기	IPA
받침 k	ガッコウ (学校)	gakkou	gǎkko:
받침 n	ガンタイ (眼帯)	gantai	gantai
받침 t	ガッター (合体)	gattai	gattai
받침 l*	*	*	*
받침 m	ガンバル (頑張る)	gambaru	gambaru
받침 p	ガッペい (合併)	gappei	gappe:
받침 ng	ガン (癌)	Gang	gǎŋ

위 표 10과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받침 “l” 이 외의 받침 발음이 일본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받침의 표기법이 발음(撥音) “ン”<sup>14</sup>과, 축음(促音) “ッ”로만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받침 표기법으로도 문자 사용이 가능한 논리를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본어에 받침 “l”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12의 제자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sup>14</sup> 撥音 “ン”은 6 개의 변이음인 [m], [n], [ɲ], [ŋ], [ŋ], [v]로 발음되어지고 있다. 7 개의 변이음 설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五音之緩急, 亦各自為對. 如牙之○與ㄱ為對, 而○促呼則變為ㄱ而急, ㄱ舒出則變為○緩.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ㅅ, 喉之○ㅇ, 其緩急相對, 亦猶是也.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驚字, 聲當用ㄷ, 而俗習讀為ㄹ, 蓋ㄷ變而輕也. 若用ㄹ為驚之終, 則其聲舒緩, 不為入也.

오음의 느리고 빠른 것이 또한 각각 짝을 이룬다. 어금닛소리는 ○과 ㄱ이 짝이 되는 바, ○을 빠르게 소리내면 ㄱ으로 바뀌어 빠르게 되고, ㄱ을 천천히 소리내면 ○으로 바뀌어 느리게 된다. 혀소리의 ㄴㄷ, 입술소리의 ㅁㅂ, 잇소리의 △ㅅ, 목구멍소리의 ○ㅇ도 그 느리고 빠름이 서로 짝이 되는 것은 또한 이와 같다. 또 반혃소리 ㄹ은 토박이말에는 당연히 쓰이나, 한자말에는 쓸 수 없다. 입성의 驚자는 끝소리로 마땅히 ㄷ을 써야 하지만, 세속의 관습에 ㄹ로 읽고 있는바, 대개 ㄷ이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만약에 ㄹ로 驚자의 끝소리를 삼는다면 그 소리가 천천히 나고 느려져서 입성이 되지 않는다.

위 표12에서 본 것과 같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서는 공기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받침과 공기의 흐름을 폐쇄시키는 받침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즉, 받침 발음을 소리의 느리고 빠름을 기준으로 어금닛소리, 혃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표기법을 구분하였다. 반면, 일본어는 받침 발음을 소리의 느리고 빠름만 구분하고, 표기법상에서 발음기관의 움직임은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즉 일본어의 받침 발음은 받침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을 개방하는 발음은 모두 발음 “ㄴ”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공기의 흐름을 폐쇄하는 발음은 모두 축음 “ㄷ”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일본어 받침 발음에 “l”이 없는 이유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발음에 받침 “l”이 없기에 일본어 표기법에서는 별도의 표기법으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받침 발음은 내파음(內破音)적인 특징이 강하기에 타 언어와 별도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음성학적 해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폐음절과 개음절로 구분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을 재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책”이라는 단 음절의 단어를 개음절인 일본어로는 표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기의 흐름을 폐쇄시켜 받침 발음을 실현하는 일본어의 받침 표기를 위한 축음(促音) “ㄷ”는 어중에서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음절말 표기법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본어의 받침 표기를 위한 발음(撥音) “ㄴ”도 형성 원리는 ○(옛이음) 즉,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받침 기호 ㅁ[m], ㄴ[n], ㅇ[ŋ]과 같지만, 후속 자음의 영향으로 변하는 변이음 현상을 일본어에서는 표기법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받침 표기와 발음의 형성 원리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한국어 학습에

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학습의 경제성에 깊이 관여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며, 앞으로의 연구로 받침의 정의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3.4.3 한국어의 받침 (7종성)

표 13

받 침	[k], [n], [t], [l], [m], [p], [ng]
-----	------------------------------------

표 14

ㄱ[giyeok]	ㄴ[nieun]	ㄷ[digeut]	ㄹ[rieul]	ㅁ[mieum]
ㅂ[bieup]	ㅅ[siot]	ㅇ[ieung]	ㅈ[jieut]	ㅊ[chieut]
ㅋ[kieuk]	ㅌ[tieut]	ㅍ[pieup]	ㅎ[hieut]	

본 장에서는 13에서 표기한 한국어 받침의 7종성의 원리와 표 14에서 표기한 한국어 받침(종성자)의 발음 교수법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인지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학습자들은 글자의 형태를 보고 발음을 인지하려는 경향이 크지만, 그 원리를 교수가 바르게 인지시키지 못하면 동일 발음을 다른 발음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 3.4.4 발음 교육 4교시의 학습 어휘

발음 교육 4 교시의 학습 어휘는 다음과 같다.

- 받침 k 국, 복, 약, 책, 밖, 읽다
- 받침 n 눈, 돈, 산, 손, 천, 앓다
- 받침 t 꽃, 끝, 낮, 맛, 옷, 있다
- 받침 l 딸, 물, 실, 팔, 여덟, 잃다
- 받침 m 감, 김, 밥, 뱀, 봄, 젊다
- 받침 p 밥, 앞, 입, 잎, 값, 없다
- 받침 ng 강, 방, 병, 상, 성, 창

<sup>15</sup> 기본자음의 로마자 표기법 학습은 받침 수업에도 영향을 주기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4. 나가기

훈민정음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뛰어난 문자를 학습자들이 어렵게 학습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한국어 교육의 현실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상의 유사성과 표기법상의 특징을 학습자에게 비교 설명하는 필자의 교수법을 제안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1장에서 한국어의 기본모음과 기본자음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기초하여 일본어의 발음과 표기 체계의 유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3-2장에서는 한국어의 합성자음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기초하여 발음 교육 시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필자의 교수법을 제안해 보았다.

또, 3-3장에서 학습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음 발음의 학습을 보다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기법상의 특징을 필자의 교수법으로 해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3-4장에서는 현 학문적 정의로 구분하고 있는 개음절과 폐음절로의 한일 양 언어의 발음 대조가 아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기초하여 양 언어의 발음상의 유사성과 표기법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요인은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글을 자신의 모국어와 다른 새로운 언어 체계로 인식하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실 학습의 경제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필자의 교수법을 제안해 보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학습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목표언어를 발음상, 표기법상의 형성 원리를 비교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는 같은 형성 원리에서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습에 임할 때 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JI MENG(2011).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활용하는 한국어 자음 지도 방안.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봉식(2008). *なるほど! 韓国語 文字と発音編* 研究者.
- 강인선(2015). 가나의 역사와 현황. 한글 제307호.
- 고광모(2012). 15세기 국어의 종성 /ㄱ/에 대하여. *國語學* 제64집.
- 국어연구소 편(1988). *표준어 규정 해설*.
- 김선정(2004). 숙달도 향상을 위한 한국어 파닉스(Phonics)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29집, 45-66.

- 김은경(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정숙(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제3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김주원(2013).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주)민음사.
- 김지형(2007).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활용한 한국어 자모 및 발음 교육 방안.  
국어 국문학(147), 221-258.
- 김필규(1976). 15세기 국어의 ㄷ, ㅅ, △ 중성고 수련어문학회.
- 라성숙(2008). 韓國語發音と文法. 第2版. 白帝社.
- 민광중(2008). 일본어 음성학 입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우인혜(1998). 한일 언어 비교를 통한 발음 교수법. 이중언어학, 15 권 0 호, 319-347.
- 이경희·정명숙(2000). 한국어 과열음과 음향적 지각 단서. 음성과학, 7(2), 154-170
- 이창규(2009). 文法から学べる韓国語. ナツメ出版社.
- 조규태(201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 허용(2004). 중간언어 음운론을 위한 모음 연구.  
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 제 25 호, 309 - 330.
- 趙垞熙(2001).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音声・音韻の研究. J&C.

(무지개한국어학원 학원장)  
shinaburo@solid.ocn.ne.jp

---

韓国語教育研究（第10号）

2020年9月15日 発行

---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